

에스더 7:1-10

제목: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지: 하나님의 일하심 / 이끄심을 확신

요약: 유다 민족이 진멸될 절망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이야기에서 핵심을 다룹니다. 유다 민족을 구하기로 결단한 에스더는 하만에게 유다 민족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도 삼일 밤낮 금식하고 왕 앞에 섭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묻자 에스더는 자신이 잔치를 열 것이니 하만과 함께 올 것을 청합니다. 잔치에 가서 왕이 다시 한번 요청을 묻자 에스더는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열 것이니 그 때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이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마 왕은 속으로 “도대체 잔치에 두 번이나 초대하면서 나에게 요청하려는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청에 앞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와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요청이 왕의 상당한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임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에스더는 왕이 허락한 조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왕이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모두 죽음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왕은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꾸민 이가 하만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굳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노하여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자리를 뜬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만과 에스더 사이의 선택을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가 이미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선택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만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만을 처벌하는 것은 그 전에 조서를 허락하고 내린 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하만은 위기를 직감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가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합니다. 사면초가 상황에 하만은 강간을 의심할 여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왕은 의도적으로 하만의 모습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빌미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왕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조서의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려 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썩 후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만든 오십 규빗 되는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일하심이 나타나진 않지만 사건의 우연성과 절묘한 타이밍을 볼 때 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유다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언약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만의 계략과 유다 민족의 말살을 앞두고 에스더의 행동은 너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맡겨드리며 차분히 자신의 몫을 행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감당 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14

제목: 참 빛

대지: 말씀이신 하나님 /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약: 태초부터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우릴 위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이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은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입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요한복음은 사건중심의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된 대화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합니다.**

1 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성경의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상기시킵니다. 창세기와 여기에서 모두 “태초”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만물의 시작, 만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 절은 태초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창조를 함께 수행한 분으로 묘사가 되며 우리는 이 분을 만물의 “기원자”로 봅니다.** “말씀”이신 분이 창조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만물의 기원에 그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태초에 존재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에서 “~과 함께”로 번역된 전치사(πρός)는 일반적으로 “향하여”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은 한 인격이며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나타내려 했습니다.

본문에서 빛과 어둠은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으로 이원론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빛은 구원의 계시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 증언되고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증언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 장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말하며 단순히 선지자 중의 한 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으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재자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요한처럼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9-14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지: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 / 생명의 양식

요약: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인 무리들을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도 기적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으심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앞선 5 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지만 6 장은 다시 “갈릴리”로 배경이 전환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는데 **6 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6 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본 큰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며 빌립에게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먹으려면 보통 일꾼의 ‘여덟 달 치 품삷’도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빌립은 생각했습니다. 이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의 뒤이은 질문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를 보면 안드레의 생각이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작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남자만 5 천명, 아마도 최소 만오천명의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락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누어 줍니다.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충분히 그리고 배불리 먹었고 남은 빵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요 5:15)*

공관복음서를 포함하여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후 어떤 메시지도 없이 이야기가 마무리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왕이 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 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6:25-33

제목: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지: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 환난 속에서 누릴 평안과 담대함

요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미 이루신 승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을 마주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애통이 있겠으나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은 흐름을 살펴볼 때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7 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해했다는 듯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아닌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해 믿고 깨달은 듯 해보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시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칠 것을 이미 아셨고 예수님은 이들의 작은 믿음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박해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뿐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해 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으로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긴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 가운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